



# 논문 이중게재의 문제점

## Ethical Issues of Multiple Publication

함 창 곡 | 한양의대 영상의학과 | Chang-Kok Hahm, MD

Department of Radiology,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mail : hahmck@hanyang.ac.kr

J Korean Med Assoc 2007; 50(4): 375 - 381

### Abstract

**D**uplicate publication is publishing of an article that is identical to or overlaps considerable parts with one that has been already published elsewhere. If one or more authors retain common authorship in two separate papers with the same context, the papers are considered to be duplicated, but not plagiarized. The corresponding author was usually the case, but the first author is changed frequently. The characteristics of duplicate publication in Korea are republication of paper in journals indexed in SCI database after publishing in Korean journal one or two years before. In almost all cases they are not cross referenced. In Korean cases of duplicate publication, duplicate submissions are not rare. Generally the title is modified, and the list of authors and the sample size undergo a minor change with trivial methodological changes. Multiple publications in Korean journals usually consist of fragmentation (salami slicing) publications and overlapping (imalas) publications. Duplicate publication is an unethical behavior because of the waste of resources such as valuable time of busy reviewers, editorial work and pages, space of indexing database, and delaying the publication time of other researcher's paper. Duplicate publication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copyright law as well. Sometimes it can distort or overemphasize the results in meta-analysis studies because of overlapping of samples. To prevent duplicate publication, the editor should provide instructions regarding the journal's policy toward duplicate publication and should make authors to read the instruction in detail.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reviewers will reduce the incidence by letting them know why and how to detect duplicate publ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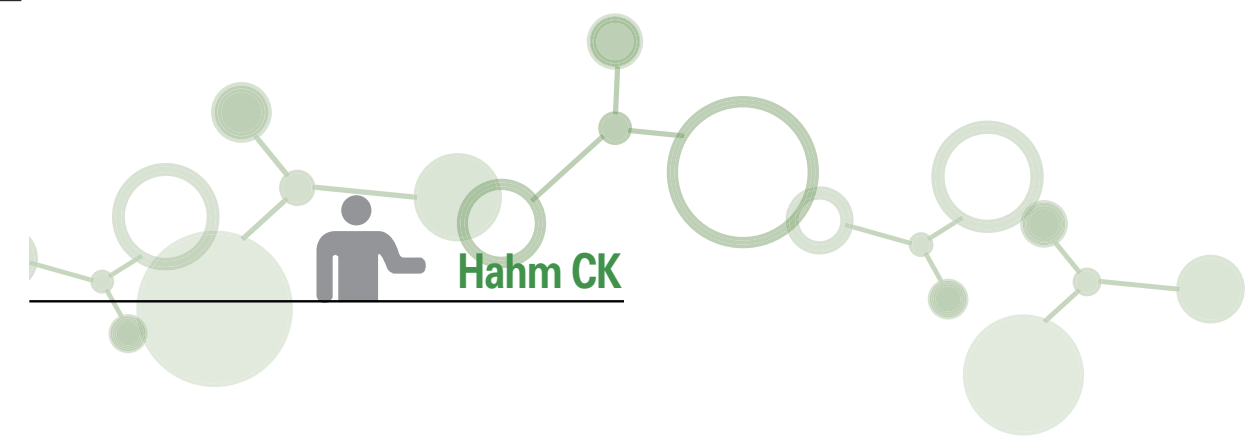
**Keywords :** Publishing ethics; Duplicate publications; Redundant publications; Salami-slicing

**핵심용어 :** 출판윤리; 이중게재; 중복출판; 분할출판

**황** 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결과의 조작 사건과 일부 고위 공직자, 학자들의 이중게재와 표절문제는 우리나라 학술 논문의 도덕성을 크게 추락시켰다. 의학 학술지에서도 이중게재의 많은 사례들이 발견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및 교육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출판윤리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식 수준이 아직도 낮다는 점이다. 이중게재의 부

당함과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면 “왜 다른 사람들도 그랬는데 나만 문제가 되느냐?” 식의 도덕성의 해이가 우리 주위에서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

국내 의학논문의 이중게재는 외국의 사례와 다소 다른 점이 있다. 언어가 크게 다르다는 점으로 허용될 수 있는 이차게재라는 주장이 많고, Medline에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중게재가 발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교수 업적평가에 대한 국내적인 특별 환경이 교수 업적물의 부풀리기를 부추기고 있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에서 개발 운영하고 있는 KoreaMed는 PubMed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내문헌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이중게재의 발견이 용이해졌고 실제로 많은 이중게재 논문이 발견되고 있다. 이중게재에 대한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고 학회별로 편집위원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출판윤리가 교육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국내문헌은 Kim(1)이 발표한 이중 출판(Duplicate Publication)이 있을 뿐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중게재의 방지를 위하여 의학논문에서 이중게재의 정의와 유형, 원인, 문제점, 특징, 허용되는 2차 출판,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이중게재의 정의와 유형

과학 연구에서의 윤리 문제는 크게 연구윤리(Research ethics)와 출판윤리(Publication ethics)로 나누고 있으며 의학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선행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의 의학연구윤리를 지켜야 한다. 대부분의 의학 학술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시행하거나 또는 동물실험을 이용한 연구의 경우 모두 IRB 심의 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윤리와 출판윤리는 용어의 차이와 같이 다른점이 있을 수 있으나 연구자의 부도덕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내용상 많은 부분이 중복된다. 2003년 Gilbert 등은(2) 연구의 잘못(Research Misconduct)을 ① Fabrication(날조), Falsification(변조), ③ Plagiarism(표절), ④ Templating(모방), ⑤ Ethics and Consent(윤리와 동의), ⑥ Data Presentation and Analysis(자료의 표현과 분석), ⑦ Authorship(저자됨), ⑧ Redundant or Duplicate Publication(중복 또는 이중게재), ⑨ Short-gunning(동시 중복투고), ⑩ Salami-Slicing(분할출간)의 10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으며 일부 과오를 제외한 대부분이 출판윤리를 위배한 것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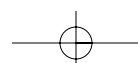
해당된다.

근본적으로 이중게재는 일련의 연구결과를 두 개 이상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같은 내용의 연구를 표본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같은 결과의 논문을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von Elm 등은(3) 이중게재의 유형을 체계적 분석을 통하여 6가지로 나누었는데 ① 표본수가 같고 결과가 같은 것, ② 표본수가 같으며 결과도 같지만 두 개 이상의 논문을 짜깁기하여 만든 것, ③ 표본수가 같으나 결과가 다른 논문(주로 분할출간이 해당된다), ④ 표본수를 늘리고 결과가 같은 것, ⑤ 표본수를 줄이고 결과가 같은 것, ⑥ 표본수가 다르며 결과도 다른 것 등으로 ⑥의 경우는 발견이 매우 어렵다.

의학학술지의 대부분은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서 제정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에 따라 잡지를 출판하고 있다. ICMJE에서(4) 이중게재는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부분(considerable parts)이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3), Cho 등은(5) 흉부외과학 저명학술지 편집인들의 모임에서 이중게재의 기준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좀 더 구체적인 다음의 6가지 항목을 발표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다. ① 가설이 유사하다, ② 숫자나 표본 크기가 유사하다, ③ 방법이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④ 결과가 유사하다, ⑤ 최소한 저자 1명이 공통이다, ⑥ 새로운 정보가 없거나 적다. 그러나 겹치는 ‘상당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유사하다’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이중게재의 판정에는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다. Mojon-Azzi 등은(6) 1997~2000년간 70개 안과계 학술지에 실린 22,433 논문을 검색하여 60개(1.39%)의 이중게재를 확인하였으며 이 때 사용한 기준은 흉부외과계 학술지의 기준(5)과 동일한 것으로 사용했으나 표본의 수를 90% 이상 겹칠 경우로 하였다.

완전히 같은 논문이 이중게재 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적으로 흔하지 않으며 간혹 동시 이중투고에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이중게재된 논문은 제목, 저자명, 표본의 수, 분석방





법 등을 약간 변형시킨 것들이다. 같은 대상이나 대조군이 사용된 연구도 대부분 중복 출간에 해당된다. 두 개의 논문에서 저자가 한 명이라도 같으면 이중게재가 되며 모두 다르다면 표절이 된다.

연구자들이 가장 흔하게 착각하고 있는 사항은 출간된 논문과 논문 내의 증례, 사진, 표 등에 대한 저작권을 저자 자신이 가진다고 오해하고 있는 점이다. 중요한 점은 일단 출간된 논문(용역 연구 결과보고서 포함)은 이미 저작권이 학술지에 이양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쓴 논문이라도 논문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내용도 해당 학술지 편집인의 허락 없이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학술지에 따라 투고규정에 저자가 편집인의 승인 없이 자기 논문의 내용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출처를 밝혀 재사용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 논문이라 할지라도 본문의 일부, 표, 그림의 중복 사용은 자기표절(self-plagiarism)이 되거나 이중게재에 해당될 수도 있다.

직접적인 이중게재는 아니지만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고 최소 출간 단위(least publishable unit)로 나누어 두 편 이상으로 출간하는 분할출간(divided, fragmentation or salami publication)이나 출간된 논문에 증례 수를 늘려 같은 결론의 논문으로 출간하는 덧붙이기출간(redundant, overlapping, repetitive or imalas publication)도 중복출간에 포함된다(7~9).

이중게재의 기준은 학술지에 따라 약간 상이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술지는 학술대회에서 구연한 논문이나 학술전시는 완전한 논문으로 간주하지 않아 논문으로 전환하여 투고하였을 경우 이중게재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Nature' 와 'Science' 같은 엄격한 학술지는 논문의 표, 그림 등 지적자료가 포함된 학술발표나 전시는 이미 '새로운 것'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게재를 거부한다.

## 이중게재가 발생하는 원인

연구자의 실력은 대부분 연구자의 업적물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일차적으로 전체 논문의 수, 다음 SCI 잡지에 게재된 논문의 수를 평가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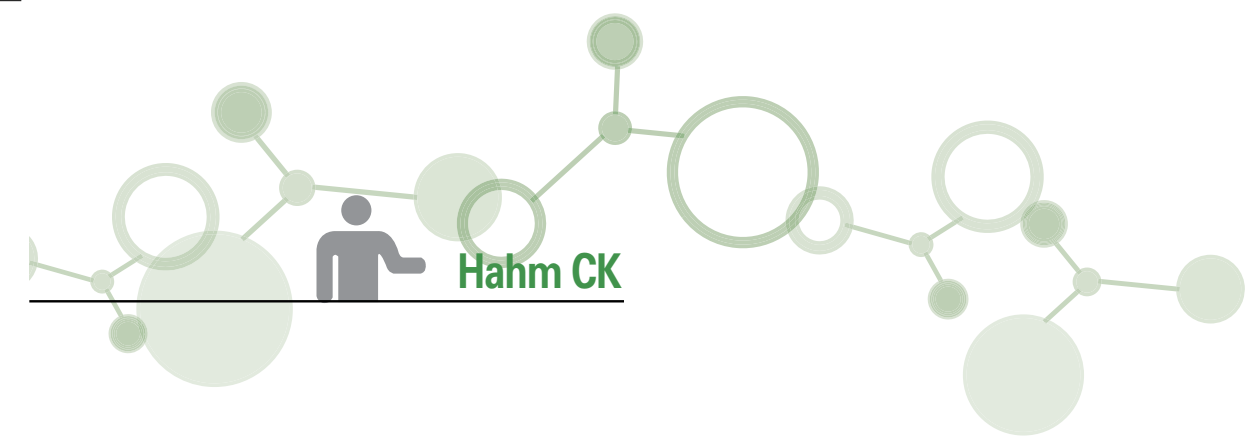
을 부풀리려는 욕망이 부정직한 연구자에게 이중게재를 발생시켜 결국 부정직한 연구자가 되는 것이다. 특히 대학의 경우 승진, 승급을 위한 교수의 업적평가 또는 연구비 신청 등에서 SCI 등재잡지에 실린 논문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어 SCI 등재잡지에 게재되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다. SCI 등재잡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미 국내에서 출판된 논문 중 논문의 설계와 결과가 우수했고 다소 창의성이 인정된 논문을 SCI 잡지에 재투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저자는 이미 출판된 논문을 숨기고 인용하지 않으며 업적 자료의 제출시에도 과거의 것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

논문의 수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분할 출간이다. 연구를 설계할 때부터 분할출간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자는 다른 논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련의 연구로 얻어진 전체 자료를 여러 개로 쪼개서 여러 개의 논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출간에 해당된다. 중복출간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논문 제목을 유사하지 않게 만들고 저자진도 다르게 구성하는 경우가 흔하다. 새로운 기술, 기자재, 약품 등이 도입된 경우 국내에서 첫 저자가 되기 위하여 적은 증례를 가지고 서둘러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적은 증례 수의 논문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례 수가 많아지면 다시 같은 내용의 논문을 쓰고 싶어지게 된다. 이것도 역시 중복출간에 해당된다.

간혹 이중게재된 논문 중에는 투고일이 비슷한 경우가 있으며 이중투고 또는 중복투고(short-gunning)라고 부른다. 논문을 빨리 출판할 필요가 있으며 채택에 대한 자신이 없을 때 몇 개의 잡지에 동시에 원고를 발송하고 두 곳에서 채택되는 경우 욕심에 의해서 또는 체면상 취소를 요구하지 못하여 이중 출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대부분은 심사 기간과 출판대기 기간의 차이로 실제 출간은 상당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10, 11).

## 국내에서 발견되는 이중게재의 특징

국내에서 발견되는 이중게재는 대부분이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일정기간 후에 외국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다. 출판의 간격은 1~2년이 대부분이며 드물게 외국에 먼저 실린 논문을 국내 잡지에 이중게재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 업적 경쟁이 심하고 실제로 우수한 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 우수 연구기관에서 이중게재는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같은 논문의 이중게재는 동시 중복투고의 경우 간혹 발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저자는 이차 투고시 논문을 약간 변형시킨다. 논문의 제목이 바뀌고 저자가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며 제1저자가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 이중게재의 의혹을 피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의 수를 추가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분석방법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먼저 출간된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내 학술지간 이중게재는 분할출간과 덧붙이기출간이 대부분이다. 이 때에도 이중게재의 의혹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학술지에 2차 투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중게재의 문제점

중복 출간은 비윤리적인 행위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학술지와 독자를 우롱하는 행위이며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학술지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심사에 심사위원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여야 하고, 학술지의 지면을 소비한다. 또한 다른 연구자의 논문 게재를 막거나 지연시키기도 한다. 색인기관도 중복된 자료를 색인하여 질적 저하와 공간의 손실을 초래하고 통계 수치의 오류를 초래한다. 독자나 연구자는 이중 검색으로 노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실망을 안겨준다. 아울러 이중게재 논문이 포함된 연구업적으로 다른 신청자를 물리치고 연구비를 획득했다면 연구비 수여기관의 질서를 문란시킨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중게재는 실험의 결과를 왜곡시킨다. 실험자료가 두 개의 논문으로 발표되고 같은 목적의 실험 결과들을 모아 메타분석하는 경우 표본이 중복 산정되어 결과가 과도하게 강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12, 13).

이중게재는 저작권 침범에 해당된다. 확립된 학술지는 중복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투고시에 저작권이양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이양서에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타 학술지에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다'라는 서약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중게재를 하는 저자는 정직하지 않은 연구자로서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진다. 더욱이 결과가 일부 다른 경우에는 논문 전체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이 논문을 찾은 독자는 실망과 허탈을 느끼게 된다.

일부 연구자는 채택률이 높지 않은 상위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채택의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유사 상위학술지에 중복투고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채택되는 학술지에 게재하고 다음 학술지에서도 채택되면 논문을 취소하려는 것이다. 중복투고는 저작권이양서의 약속을 위반한 매우 부정직한 행위이며 게재 이전에 발견되면 편집인 간의 교류에 의하여 게재 거부는 물론 저자들에 대한 처벌도 논의될 수 있다. 이중게재와 관련된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저자가 채택된 논문의 취소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중게재인 경우에는 게재 거부는 물론 처벌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학술지는 동료심사(peer review)를 거쳐 채택된 논문의 취소를 허가하지 않는다.

## 이중게재의 빈도

국내에서 이중게재가 어느정도 발생되고 있는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례는 없다. 그러나 모든 학술지에서 이중게재의 사례가 속속 발견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었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국가적 연구 보고는 없으며 학술지별 또는 외과계, 안과계 등 유관학술지를 중심으로 이중게재의 빈도가 보고되어 있다. 보고자에 따라 차이가 크며 성형외과계 학술지에서 1% 미만(14), 안과계 학술지 1.39%(6), 마취과계 학술지에서 8.3%(3), 이비인후과 학술지는 1.8%(15)와 8.5%(16) 등을 보고하고 있고, 외과계 학술지에서도 22.3%의 중복게재를 발견했으며 이중게재는 13.5%, 의심스러운 경우가 34%, 분할출간이 52.4%였음을 보고하여 분할출간이 만연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17).

외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5% 전후의 이중게재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측된다.



## 허용되는 이차출판 (Secondary Publication)

학술지와 편집인 기구에 따라 이중게재와 이차게재의 허용기준에 차이가 있다. 다른 언어로 발표하는 경우, 독자층이 다른 경우와 종설은 이중게재가 가능하다는 경우도 있다(18~20).

ICJME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차 게재라는 명목으로 중복 출판을 허용한다(4).

- (1) 저자는 두 잡지 편집인 모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차 출판 원고를 받은 편집인은 일차 출판물의 복사본이나 재인쇄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2) 일차 출판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출판 간격을 둔다(두 편집인들이 협상한 경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 (3) 이차 출판 논문은 독자층이 달라야 하고 축약본 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 (4) 이차 출판 논문은 일차 논문의 자료와 해석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 (5) 표지에 각주를 통해서 독자, 심사자, 사무국에 현 원고 전체 혹은 부분이 다른 잡지에 출판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적절한 각주는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잡지이름, 전체 참고문헌] 처음 보고된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이차 출판승인 비용은 무료로 하여야 한다.
- (6) 이차 출판물의 제목에는 이것이 이차 출판임을 표현하는 문구(재출판, 요약 재출판, 완역, 요약 번역)가 있어야 한다.

미국 의학도서관에서는 번역을 “재출판”으로 간주하지 않고 원저가 출판되어 있고 메드라인에 색인되어 있으면 번역본은 색인하거나 인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독자와 미국의 독자가 언어가 다르다는 한 가지 이유로 이차게제가 허용되지는 않는다

## 출판윤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

중복 출간된 논문이 발견되면 해당 학술지는 저자에게 소

명의 기회를 주며 저자 확인이 끝나면 과실의 정도에 따라 주 서한을 발송하거나 학술지에 공식적으로 논문이 취소됨을 게재하고 책임 저자들에게는 투고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처벌이 뒤따른다. 그러나 저자가 이중게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판정하기도 하며 국내에서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에 유권 해석을 요구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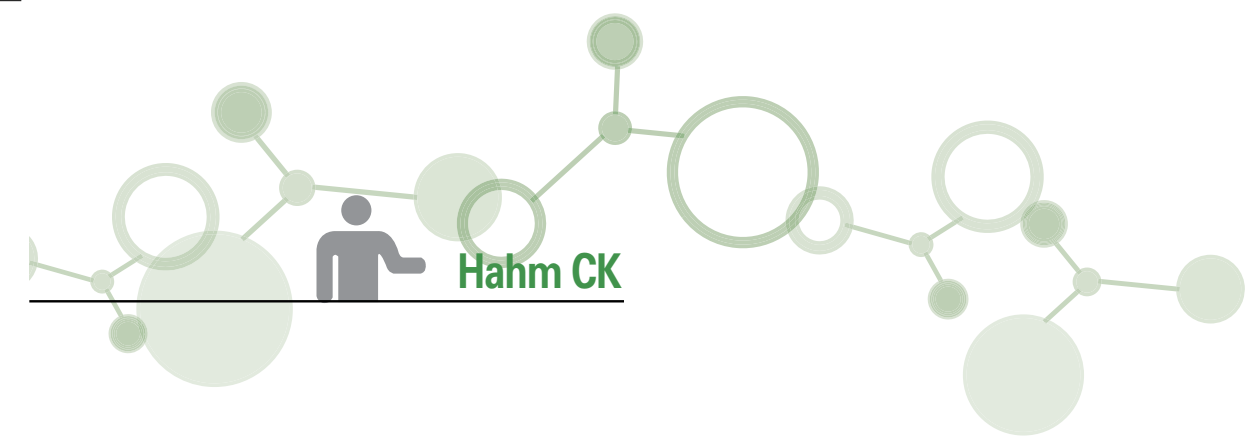
저자에게 이중게재의 사실을 알리고 소명할 것을 요구하면 많은 저자들은 ‘투고규정을 읽지 않았다’, ‘우리는 다른 독자층을 대상으로 했다’, ‘원저를 인용하지 않은 것은 별 것 아닌 단순한 실수였다’, ‘중복의 정도가 편집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 ‘규정을 어긴 것은 인정하지만 절대 고의적인 것은 아니다’ 등으로 항변하지만(21) 대부분은 처벌을 받아들인다.

처벌 방법은 COPE(Committee of Publication Ethics)의 제안이 주로 인용되며 아래와 같다(20).

### 중복출간의 제재조치

- (1) 단순한 실수로 인정될 때 주의서한 발송
- (2) 재발 방지를 위한 견책, 경고서한
- (3) 해당 기관장, 연구비 지원 기관에 공식서한
- (4) 중복출간, 또는 표절을 해당 학술지에 고시
- (5) 위반사항 전모에 대한 편집인의 글
- (6) 위반 저자, 연구진, 연구기관에 일정기간 투고 금지
- (7) 타 학술지 또는 색인기관에 통보 공식 삭제
- (8) 상위기관(의협 등)에 통보(고발)하여 조사 및 조치 취하게 함

논문의 취소 또는 색인의 취소는 용어의 설명과 다르게 취급된다. 즉 이미 출판되어 배포된 잡지를 모두 회수하여 재출판할 수 없기 때문이며 데이터베이스로 색인된 논문은 1건으로 등록되어 통계처리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삭제할 수 없다. 따라서 논문의 취소는 해당학술지에 “Retraction” 또는 “Notice of Duplicate Publication” 등으로 게재하게 되고 색인기관에서는 그 게재된 글을 해당 논문에 link시켜 그 논문이 다른 논문과 이중게재되어 있음을 항상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자는 정직함이 기본이므로 이를 무시한 경우에는 그의 모든 연구 결과는 신뢰를 잃게 된다. 따라서 심각한 표절이나 자료의 날조가 발견되면 해당 저자의 과거의 논문까지 모두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윤리적인 문제이므로 근본적으로 형사문제화 되지 않는다. 부정직,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기관에서 처벌받게 되며 나아가 해당 전문가 집단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 결론

유사한 목적의 논문이거나 대상의 상당부분이 중복되는 논문이지만 저자가 새로운 논문이라고 주장하려면 우선 저자는 이 원고를 먼저 논문이 출판된 학술지에서 채택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모든 학술지는 과거에 게재된 논문과 유사성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이중게재의 가능성은 물론 새로운 지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학술지 내에서의 중복게재는 흔하지 않다. 같은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는 논문을 원저를 숨기고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연구자로서 매우 부정직한 행위이다. 이중게재의 판단은 전적으로 심사위원과 편집인의 역할이다. 따라서 유사성이 있는 논문이라도 저자가 새로운 것이라는 자신이 있으면 그러한 내용을 솔직하게 편집인에게 밝히면 채택될 가능성도 증가되고 거부되더라도 이중게재의 오명에서는 벗어난다. 그러나 과거를 숨기고 투고한 경우 사실이 밝혀지면 채택될 기회는 적어지고 이중게재의 오명을 남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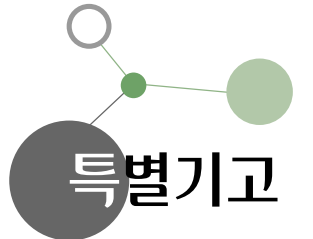
이중게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출판윤리의 문제점을 자주 학술지에 편집인의 글로 공지하여 독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편집인은 투고자가 투고규정을 면밀하게 읽도록 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학술지의 출판윤리에 대한 방침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중게재의 우려가 있는 원고의 경우 편집인에게 미리 알리게 함으로써 심사 전에 이중게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심사위원에게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중게재의 문제점을 알리고 감시의 필요성과 방법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이중게재가 항상 같은 분야의 학술지 사이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편집인 간에도 동료의식을 가지고 자료를 공유하여 함께 출판윤리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22).

끝으로 ICMJE의 통일양식에서는 “논문을 제출할 때 저자는 중복 혹은 이중 출판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모든 논문 제출이나 보고에 대하여 편집인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저자는 과거 다른 잡지에 보고하거나 제출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모두 언급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논문에 참고문헌으로 실려야 한다. 그러한 자료는 복사해서 원고와 같이 제출하여 “편집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여 연구자의 정직성을 강조하고 있다(3).

## 참고문헌

1. Kim SY. Duplicate publication. J Korean Acad Fam Med 2006; 27:687-92.
2. Gilbert FJ, Denison AR. Research misconduct. Clin Radiol 2003;58:499-504.
3. von Elm E, Poggia G, Walder B, Tramer MR. Different patterns of duplicate publication. JAMA 2004;291:974-980.
4.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ICMJE).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 Available from <http://www.icmje.org>
5. Cho BK, Turina MI, Karp RB, Ferguson TB, Bodnar E, Waldhausen Ja. Joint statement on redundant (duplicate) publication. J Card Surg 1998;13:417.
6. Mojon-Azzi SM, Jiang X, Wagner U, Mojon DS. Redundant publications in scientific ophthalmologic journals. The tip of the iceberg? Ophthalmology 2004;111:863-866.
7. Abraham P. Duplicate and salami publications. J Postgrad Med 2000;46:67-69.
8. Benos DJ, Fabres J, Farmer J, Gutierrez JP, Hennessy K, Kosek D, Lee JH, Olteanu D, Russell T, Shaikh F, Wany K. Ethics and scientific publication. Adv Physiol Educ 2005; 29:59-74.
9. Kempers RD. Ethical issues in biomedical publications. Fertil Steril 2002;77:883-888.
10. Torgerson DJ, Adamson J, Cockayne S, Dumville J, Petherick E. Submission to multiple journals; a method for reducing time to publication. BMJ 2005;330:305-307.
11. Freischlag JA. Simultaneous submission should not result in simultaneous publication. Arch Surg 2006;141:1064.



12. Tramer MR, Reynolds DJM, Moore RA, McQuay HJ. Impact of covert duplicate publication on meta-analysis: a case study. *BMJ* 1997;315:635-640.
13. Johnson C. Repetitive, duplicate and redundant publications: A review for authors and readers. *J Manipulative Physiol Ther* 2006;29:505-509.
14. Durani P. Duplicate publications: redundancy in plastic surgery literature. *J Plast Reconstr Aesthet Surg* 2006;59:975-977.
15. Bailey BJ. Duplicate publication in the field of ot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Otolaryngol Head Neck Surg* 2002;126:211-216.
16. Rosenthal EL, Masdon JL, Buckman C, Hawn, M. Dupilcate publications in the otolaryngology literature. *Laryngoscope* 2003;113:772-774.
17. Schein M, Paladugu R. Redundant surgical publications: tip of the iceberg? *Surgery* 2001;129:655-661.
18. Huth EJ. Repetitive and divided publications. in Jones AH, McLellan F, ed. *Ethical issues in biomedical public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USA 2000:112-136.
19.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WAME). WAME recommendation on publication ethics policies for medical journals: originality, prior publication, and media relations. Available from <http://www.wame.org>
20.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COPE), Guidlines on good publication practice. Available from <http://www.publicationethics.org.uk>
21. Tobin MJ. AJRCCM's policy on duplicate publication. *Am J Respir Crit Care Med* 2002;166:433-437.
22. Benninger MS, Jackler RK, Johnson JT, Johns MM, Kennedy DW, Ruben RJ, et al. Consortium of ot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journals to collaborate in maintenance of high ethical standards. *Otolaryngol Head Neck Surg* 2005;132:675-676.